



최강희 감독

이청용·박주영·기성용·구자철·이동국...

최강희호 '최강멤버' 뜬다



최강희호에 합류한 이청용(왼쪽)과 박주영

9월 11일 브라질월드컵 우즈베크전 대표 23명 발표
박종우·윤석영 등 '홍명보의 아이들' 대거 발탁

8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목표로 삼은 최강희(52) 축구대표팀 감독이 부상에서 회복한 이청용(볼턴)과 병역 논란을 벗은 박주영(아스널)을 앞세워 우즈베키스탄 격과에 나선다.
또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3~4위전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 적힌 종이를 들고 '독도 세리머니'를 펼친 박종우(부산)도 생애 첫 A대표팀 승선에 성공했다.

월드컵 축구 우즈베크전 선발 23명
FW: 이동국(전북) 김신욱(울산)
MF: 이청용(볼턴) 구자철(아우쿠스부르크) 기성용(스완지) 박주영(아스널) 이근호(울산) 하대성(서울) 김보경(카디프시티) 박종우(부산) 윤빛가람(성남) 이승기(광주)
DF: 박태환(울산) 윤석영(전남) 이정수(알사드) 박주호(바젤) 오범석(수원) 정인환(인천) 고요한(서울) 황석호(히로시마)
GK: 정성룡(수원) 김경관(울산) 김진현(세레소오사카)



런던올림픽 일본과의 3~4위전에서 '독도 세리머니'를 펼친 박종우. 박종우는 올림픽대표팀에서 중원을 튼튼히 지켜내 생애 첫 A대표팀으로 발탁됐다.

골잡이로 인정받은 이동국(전북)과 196cm의 장신 공격수 김신욱(울산)이 자리 잡았다.
수비라인에는 광태환(울산), 이정수(알사드), 박주호(바젤), 오범석(수원) 등 기존 멤버 외에 지난해까지 미드필더로 뛰다 윗줄로 전향한 고요한(서울)도 15일 잡미 평가전(2-1승)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재발탁됐다.

또 미드필더에는 윤빛가람(성남), 하대성(서울), 이승기(광주) 등 중원 자원과 함께 측면 날개인 이근호(울산)도 이름을 올렸다.
최강희 감독은 "우즈베키스탄을 이기면 앞으로 일정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선수를 선발하는 데 고민을 많이 했다"며 "지금처럼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양차' '쌍룡'에서 박지성만 빠졌네

EPL 태극전사들 가세 ... 축구 대표팀 공격력 배가

골잡이 박주영(아스널)과 날개 공격수 이청용(볼턴)이 태극마크를 회복하면서 한국 축구 대표팀의 공격력이 배가될 전망이다.
29일 최강희 대표팀 감독이 다음 달 11일 우즈베키스탄과의 2014년 브라질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3차전을 앞두고 발표한 선수명단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이들 선수의 합류다.

트와의 월드컵 3차 예선 최종전(4-4-1-1 포메이션)에서 함께 출전해 각각 최전방 스트라이커와 처진 스트라이커로 활동했다.
오른쪽 미드필더인 이청용의 가세도 대표팀에는 매우 반갑다.
최 감독은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은 뒤 가장 고민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측면 공격자원이 약하다는 것이었다"며 "이청용이 들어와서 그런 걱정을 많이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주영은 잉글랜드 프로축구 아스널에서 출전 기회를 거의 잡지 못해 경기력이 떨어진 데다 병역 회피 논란에 휘말려 최근 4차례 연속으로 A매치에 선발되지 못했다.
이청용도 지난 시즌을 앞두고 오른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소속 클럽에서 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표팀 경기에도 계속 결장했다.

최 감독은 "선수들이 큰 부상으로 오래 재활하면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문제가 온다"며 "그러나 이청용은 워낙 영리한 선수라서 문제를 모두 극복했다"고 말했다.

대표팀 코치진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은 국내 최고의 골잡이로 평가되는 이동국(전북)과 짝을 맞춰 얼마나 상승효과를 내느냐다.
이동국은 최전방에 불박이처럼 머물러 활동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타깃형 스트라이커에 가깝고 박주영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활발히 자리를 이동하는 공격수다.

최 감독은 "선수들이 큰 부상으로 오래 재활하면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문제가 온다"며 "그러나 이청용은 워낙 영리한 선수라서 문제를 모두 극복했다"고 말했다.

최 감독은 "박주영과 이동국이 함께 나설 때 상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밝히 두 선수를 함께 출전하도록 하는 최적 조합을 찾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두 명의 스트라이커를 세우기 보다 스트라이커 한 명에 배후에서 침투하는 공격수 한 명을 포진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기본적인 활용 틀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 감독은 "선수들이 큰 부상으로 오래 재활하면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문제가 온다"며 "그러나 이청용은 워낙 영리한 선수라서 문제를 모두 극복했다"고 말했다.

최 감독은 "선수들이 큰 부상으로 오래 재활하면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문제가 온다"며 "그러나 이청용은 워낙 영리한 선수라서 문제를 모두 극복했다"고 말했다.

기성용 깜짝 데뷔전 ... 스완지 3-0 완승

캐피털원컵 반출리전

'600만 파운드의 사나이' 기성용(23)이 리그 데뷔전을 통해 스완지시티 데뷔전을 치렀다.
기성용은 29일 새벽(한국시간) 영국 웨일스 스완지의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반출리(2부리그)와의 2012 캐피털원컵 2라운드 홈경기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출전했다.



스완지시티 구단 홈페이지에 소개된 기성용.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기성용은 안정적인 패스와 과감한 몸싸움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후반 31분 마크 고워와 교체됐다.
기성용은 스코틀랜드축구협회로부터 웨일스 축구협회의 이적동의서 전달 과정이 늦어져 이번 경기에 결장할 뻔 했지만, 다행히 경기 직전 절차가 마무리돼 등번호 24번을 달고 '깜짝 출격'에 성공했다.

스완지시티는 후반 24분 반출리의 보비 해셀에게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헤딩으로 추격골을 허용해 잠시 주춤했지만 결승골의 주인공인 무어가 후반 43분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헤딩골을 꽂아 3-1 승리를 마무리했다.

스완지 감독 "기성용 만족"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의 미카엘 라우드루프 감독이 데뷔전을 치른 기성용(23)에 대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라우드루프 감독은 이날 데뷔전을 치른 기성용과 수비수 바틀리에 대해 "만족스럽다"며 "중원을 지킨 3명의 미드필더는 함께 경기를 해본 적이 없고 바틀리 역시 팀에 합류한 지 이제 12일밖에 되지 않았다"며 "다행히 기성용과 바틀리가 좋은 경기를 펼쳐 체력을 과시했다."



조선대생들 "오빠 태권스타일"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12 세계태권도한마당' 태권체조 대회에서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선보인 '오빠 태권스타일' 음악에 맞춰 태권체조를 선보이고 있다.